

공동주택 거주자 특성에 따른 부엌 공간 선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ference for the Planning Components of Kitchen according to Residential Characteristics

신화경* / Shin, Hwa-K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reference for the planning components of kitchen according to residential characteristic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adopted in this study, and 184 ca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condition and preference in size, location, and layout of kitchen, remodeling elements, and satisfaction with kitchen. Frequency, percentage, and mean, correlation, χ^2 -test, and ANOVA were used for data analysis. Subjects preferred the kitchen of size 4⁵ pyung. And they tended to prefer the kitchen located the inside and 6th shape-separated kitchen from dinning area.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preference of the planning components of kitchen according to residential characteristics was not distinct except housing size.

키워드 : 부엌, 공동주택 거주자, 선호

Keywords : Kitchen, Residents, Preference

1. 서론

주거에 관한 의식 변화와 함께 사회적인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주거환경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가사작업 공간으로의 부엌공간은 가사작업을 위한 주부의 전용 공간에서 가구구성원 전체를 위한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즉, 폐쇄성이 짙었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 부여가 되는 공간구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가족생활주기별 아파트 단위주호 계획요소 선호분석 결과, 단위주호 계획요소로서 부엌과 관련된 요소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연숙 외, 2005), 주거실태 조사를 한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별 중요도에서 부엌의 중시 비율이 24%로 거실 다음으로 중요한 공간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위주호에서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부엌공간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거주자 특성별 선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거공간 내 부엌공간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엌공간 규모 현황 및 선호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부엌공간의 배치 특성 현황 및 선호를 비교분석한다.

셋째, 부엌공간 내 가구구성 특성 현황 및 선호를 비교분석한다.

넷째, 부엌공간의 개조 특성 및 개조 이유를 파악한다.

다섯째, 부엌공간에 대한 만족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001년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자가가입식 설문지를 배포 회수 하였다. 설문지는 부엌의 규모, 위치 및 가구구성 특성에 대한 현황 및 선호, 개조 특성, 부엌공간에 대한 만족도,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도구의 Cronbach Alpha는 .786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총 22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총 18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피어슨의 상관계수, χ^2 -test, 및 ANOVA를 사용하였다.

3. 조사결과 및 논의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 주부의 연령은 31~40세 이하가 48.9%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64.7%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는 자녀학력기 단계가 41.6%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생활비는 301만원 이상이 38.5%, 151~250만원 이하가 34.6%로 나타났

* 정희원,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소비자주거학 전공 부교수

다. 현재 취업한 주부는 34.3%였으며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는 26~40평 이하가 59.8%였다.

3.2. 부엌공간의 규모

현 주택의 부엌규모는 3~4평 미만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규모에 대한 증감에 대한 선호조사 결과 증가에 대한 선호가 70.1%로 가장 많았다. 현재의 부엌 규모와 증감에 대한 선호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3평 미만의 부엌의 경우는 앞으로 부엌규모의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3~4평과 5~6평 미만의 부엌의 경우는 현재 규모를, 6평 이상에서는 현재 정도나 혹은 축소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사대상별 부엌 규모 증감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결과 주택 규모를 제외한 주부의 연령, 학력, 취업 유무 및 월평균 생활비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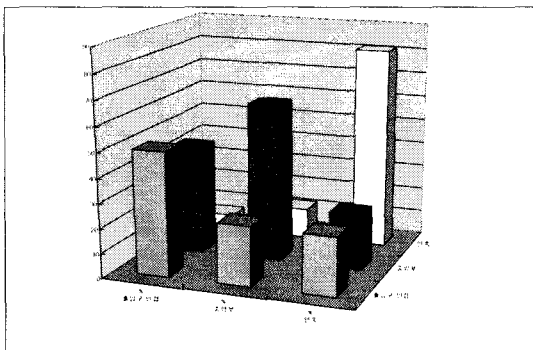
<표 1> 현 주택의 부엌규모와 규모 증감에 대한 선호 비교

현규모	규모 증감선호	증가 선호	현재 규모 선호	감소 선호
2평 미만		██████████		
2~3평 미만		██████████		
3~4평 미만			██████████	
4~5평 미만			██████████	
5~6평 미만			██████████	
6평 이상			██████████	██████████

██████████ 관찰빈도가 기대빈도보다 큰 경우를 표시함

3.3. 부엌공간의 위치

현 주택의 부엌 위치는 출입구에서 복도나 거실을 거쳐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나 앞으로 이사하고 싶은 집에서는 출입구 반대 편 가장 안쪽에 부엌이 위치하길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엌위치에 대한 선호는 현 부엌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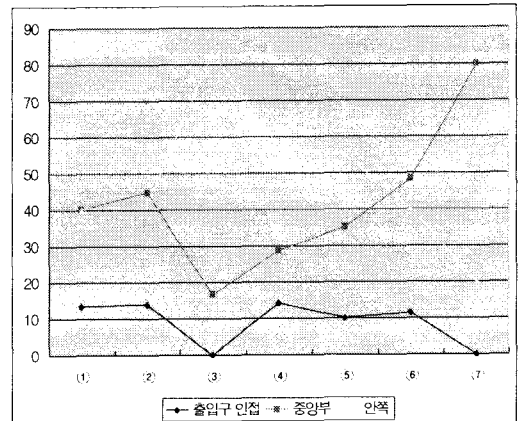
<그림 1> 부엌 위치 현황 및 선호

3.4. 부엌공간의 가구구성

부엌공간 내 작업대 및 식탁, 다른 공간과의 개폐 여부에 관한 7가지 사례를 제시한 결과, 현재는 1번 사례에 대한 비율이 높았으나 미래에는 6번 사례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유형에 따라 미래 선호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부엌공간 내 가구구성은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는 부엌의 위치와 부엌 내 가구구성 특성 선호를 분석한 결과 선호하는 부엌 위치에 따라 가구구성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부엌공간의 개조

부엌 개조 내용으로는 '가구교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규모확장' 및 '마감재 교체'가 많았다. '넓고 오래되어서', '수납공간 확대'를 위해 개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규모 확장을 위해 개조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선호하는 부엌 위치와 부엌 내 가구구성 특성 선호

<표 2> 개조 내용 및 개조 이유

개조 내용	분류	
	f	%
개조 내용	규모 확장	29 / 15.8
	위치 변경	17 / 9.2
	마감재 교체	28 / 15.2
	가구 교체	74 / 40.2
	부엌문 설치 및 교체	7 / 3.8
개조 이유	기타	3 / 1.6
	규모가 좁아서	28 / 15.2
	개방감 증진	21 / 11.4
	파손 회복	13 / 7.1
	식사공간과의 분리	8 / 4.3
	넓거나 오래되어서	48 / 26.1
	거실이나 출입구로부터의 폐쇄	4 / 2.2
	작업면적 확대	18 / 9.8
	수납공간 확대	37 / 20.1
	작업의 효율성	15 / 8.2
디자인 개선	23 / 12.5	
기타	5 / 2.7	

* 복수응답문항임

3.6. 부엌공간에 대한 만족도

현 주택의 부엌에 대한 만족도는 2.8924점으로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특성별 만족도는 부엌 가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규모, 마감재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치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엌공간 특성별 만족도는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엌공간에 대한 만족도

특성	평균	표준편차
위치	1.5489	.84141
규모	2.0929	.78243
마감재	2.0000	.82542
색	1.8967	.79286
조명	1.8424	.86343
환기	1.9402	.98164
급배수시설	1.6612	.86759
부엌가구	2.1038	.84849

4.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엌 규모는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평 미만은 확장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6평 이상은 현재 규모보다는 축소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현재 3~4평과 5~6평 규모에서는 현재 규모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규모별 부엌공간의 규모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점차 부엌공간의 확대 경향과 부엌 기능의 다양화되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3~6평 규모의 부엌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적 고려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 부엌에 대한 만족도 중 부엌 위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부엌의 위치는 출입구 반대편 가장 안쪽에 위치하길 선호하였으며 조사대상 특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사공간과의 공간적 분리 구성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 부엌공간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위치뿐만 아니라 식사공간과의 분리가 될 수 있는 계획이 요구된다.

셋째, 부엌에 대한 개조는 수납공간의 확대 및 낙후정도의 개선을 위해 부엌가구의 교체비율이 높았으며 부엌의 규모 확장을 위한 개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정한 부엌공간의 확보와 함께 수납공간의 체계적 배려의 요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미희·이유미, 소비자 특성에 따른 아파트 실내 공간 선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1호, 1999
2. 이연숙·이현정·이지영, 가족생활주기별 아파트 단위주호 계획요소 선호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4(2), 2005
3. 허영숙, 아파트 거주가구의 주생활양식 유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 서론

주거에 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사회적인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주거환경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가사직업공간으로서의 부엌공간은 가사직업을 위한 주방의 전용 공간에서 가족구성원 간격을 위한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즉, 쾌적성이 높았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벽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 부여가 되는 공간구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가족생활주기별 여파도 단위주택 계획요소 분석결과 결과, 단위주택 계획요소로서 부엌과 관련한 요소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숙 외, 2005). 주거실의 조서를 연구하여 알아낸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별 중요도에서 부엌의 중요도 비율이 24%로 거실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위주택에서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부엌공간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거주자 특성별 선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거공간 내 부엌공간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2. 연구방법

2001년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자기감정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부엌의 규모, 위치 및 가구구성 특성에 대한 현황 및 선호, 개조 특성, 부엌공간에 대한 만족도,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도구의 Cronbach Alpha는 .786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총 220부를 배포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하고 총 18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피어슨의 상관계수, X²-test, 및 ANOVA를 사용하였다.

3. 조사결과 및 논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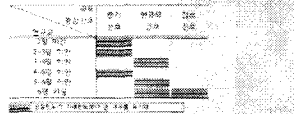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여성	178	96.8%
남성	6	3.2%
연령		
31~40세	102	55.4%
41~50세	58	31.5%
51~60세	24	13.0%
61세 이상	0	0.0%
주택유형		
아파트	178	96.8%
다세대주택	6	3.2%

조사대상 주부의 연령은 31~40세 이하가 48.9%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64.7%로 가장 많았다. 가족생활주기는 자녀학령기 단계가 41.8%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양식별로는 301만원 이상이 38.5%, 131~250만원 이하가 34.6%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한 부부는 34.3%였으며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는 26~40평 이하가 89.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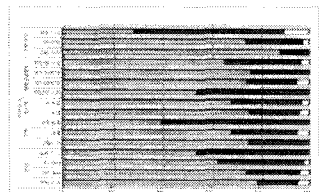
<표 2> 현 주택의 부엌규모

부엌규모	빈도	백분율
1~20평	1	0.5%
21~30평	1	0.5%
31~40평	1	0.5%
41~50평	1	0.5%
51~60평	1	0.5%
61~70평	1	0.5%
71~80평	1	0.5%
81~90평	1	0.5%
91~100평	1	0.5%
101~110평	1	0.5%
111~120평	1	0.5%
121~130평	1	0.5%
131~140평	1	0.5%
141~150평	1	0.5%
151~160평	1	0.5%
161~170평	1	0.5%
171~180평	1	0.5%
181~190평	1	0.5%
191~200평	1	0.5%

<표 3> 현 주택의 부엌규모와 규모 특성에 대한 선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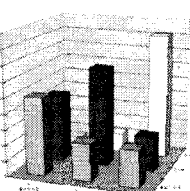


현 주택의 부엌규모는 3~4평 미만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규모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선호조사 결과, 평가에 대한 선호가 70.1%로 가장 많았다. 현재의 부엌 규모와 특성에 대한 선호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3평 미만의 부엌의 경우는 앞으로 부엌규모의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3~4평과 5~6평 미만의 부엌의 경우는 현재 규모를 5평 이상에서는 현재 정도나 축소할 의향이 없었으며, 3~4평과 5~6평 미만의 부엌의 경우는 현재 특성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결과, 주택 규모에 제한된 주택의 연령, 학력, 취업 유무 및 생활양식 등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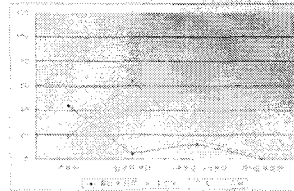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 특성별 부엌규모 특성에 대한 선호

부엌 공간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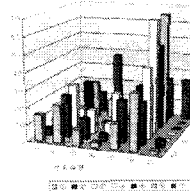
<그림 2> 부엌 위치 현황 및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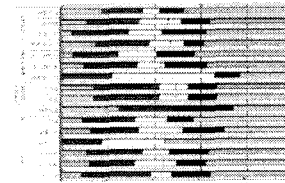
<그림 3> 가사분담 특성에 따른 부엌 위치에 대한 선호

현 주택의 부엌 위치는 출입구에서 북쪽이나 거실로 거쳐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나 앞으로 이시키고 싶은 집에서는 출입구 반대편 가장 안쪽에 부엌이 위치할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엌 위치에 대한 선호는 현 부엌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엌 공간의 가구구성



<그림 4> 부엌 공간 내 가구구성 현황 및 선호



<그림 5> 조사대상 특성을 가구구성 특성에 대한 선호 <그림 6> 선호하는 부엌 위치와 부엌 내 가구구성 특성 선호

부엌공간 내 직립대 및 식탁, 다른 공간과의 개폐 여부에 관한 가짜 사례를 제시한 결과, 현재는 1번 사례에 대한 비율이 높았으나 미래에는 6번 사례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보였으며 미래 사례에 따라 미래 선호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부엌공간 내 가구구성은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는 부엌의 위치와 부엌 내 가구구성 특성 선호를 분석한 결과 선호하는 부엌 위치에 따라 가구구성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엌 공간의 개조

부엌 개조는 거주자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규모확장 및 미장품 교체 등이 많았다. '냉고 교체' 등에서 '수납공간 확대'를 위해 개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규모 확장을 위해 개조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엌 개조 내용

부엌 개조 내용	빈도	백분율
냉고 교체	102	55.4%
수납공간 확대	89	48.4%
미장품 교체	78	42.4%
가구 교체	67	36.4%
벽면 마감재 교체	56	30.4%
부엌 조명 교체	45	24.5%
부엌 바닥재 교체	34	18.5%
부엌 천장재 교체	23	12.5%
부엌 벽지 교체	12	6.5%
부엌 도색	11	6.0%
부엌 문턱 교체	10	5.4%
부엌 창문 교체	9	4.9%
부엌 환기장치 교체	8	4.3%
부엌 배수관 교체	7	3.8%
부엌 가스배관 교체	6	3.3%
부엌 전기배관 교체	5	2.7%
부엌 수도배관 교체	4	2.2%
부엌 환기장치 교체	3	1.6%
부엌 배수관 교체	2	1.1%
부엌 가스배관 교체	1	0.5%
부엌 전기배관 교체	1	0.5%
부엌 수도배관 교체	1	0.5%

<표 5> 부엌 개조 이유

부엌 개조 이유	빈도	백분율
부엌 개조 필요	102	55.4%
부엌 개조 희망	89	48.4%
부엌 개조 가능	78	42.4%
부엌 개조 여유	67	36.4%
부엌 개조 예산	56	30.4%
부엌 개조 시간	45	24.5%
부엌 개조 비용	34	18.5%
부엌 개조 안전	23	12.5%
부엌 개조 편의	12	6.5%
부엌 개조 미관	11	6.0%
부엌 개조 건강	10	5.4%
부엌 개조 환경	9	4.9%
부엌 개조 안전	8	4.3%
부엌 개조 미관	7	3.8%
부엌 개조 건강	6	3.3%
부엌 개조 환경	5	2.7%
부엌 개조 안전	4	2.2%
부엌 개조 미관	3	1.6%
부엌 개조 건강	2	1.1%
부엌 개조 환경	1	0.5%

부엌 공간에 대한 만족도

<표 6> 부엌 공간 특성별 만족도

부엌 공간 특성	만족도	빈도	백분율
부엌 위치	1	102	55.4%
부엌 위치	2	89	48.4%
부엌 위치	3	78	42.4%
부엌 위치	4	67	36.4%
부엌 위치	5	56	30.4%
부엌 위치	6	45	24.5%
부엌 위치	7	34	18.5%
부엌 위치	8	23	12.5%
부엌 위치	9	12	6.5%
부엌 위치	10	11	6.0%
부엌 위치	11	10	5.4%
부엌 위치	12	9	4.9%
부엌 위치	13	8	4.3%
부엌 위치	14	7	3.8%
부엌 위치	15	6	3.3%
부엌 위치	16	5	2.7%
부엌 위치	17	4	2.2%
부엌 위치	18	3	1.6%
부엌 위치	19	2	1.1%
부엌 위치	20	1	0.5%

현 주택의 부엌에 대한 만족도는 2.8924점으로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특성별 만족도는 부엌 개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규모, 미장품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부엌에 대한 만족도는 향후 부엌 개조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부엌공간 특성별 만족도는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조사대상 특성에 따른 부엌 규모에 대한 만족도

부엌 규모	만족도	빈도	백분율
1~20평	1	102	55.4%
1~20평	2	89	48.4%
1~20평	3	78	42.4%
1~20평	4	67	36.4%
1~20평	5	56	30.4%
1~20평	6	45	24.5%
1~20평	7	34	18.5%
1~20평	8	23	12.5%
1~20평	9	12	6.5%
1~20평	10	11	6.0%
1~20평	11	10	5.4%
1~20평	12	9	4.9%
1~20평	13	8	4.3%
1~20평	14	7	3.8%
1~20평	15	6	3.3%
1~20평	16	5	2.7%
1~20평	17	4	2.2%
1~20평	18	3	1.6%
1~20평	19	2	1.1%
1~20평	20	1	0.5%

<표 8> 조사대상 특성에 따른 부엌 위치에 대한 만족도

부엌 위치	만족도	빈도	백분율
1	102	55.4%	
2	89	48.4%	
3	78	42.4%	
4	67	36.4%	
5	56	30.4%	
6	45	24.5%	
7	34	18.5%	
8	23	12.5%	
9	12	6.5%	
10	11	6.0%	
11	10	5.4%	
12	9	4.9%	
13	8	4.3%	
14	7	3.8%	
15	6	3.3%	
16	5	2.7%	
17	4	2.2%	
18	3	1.6%	
19	2	1.1%	
20	1	0.5%	

4. 결론 및 제언

첫째, 부엌 규모는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평 미만을 확장할 의향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6평 이상은 현재 규모보다는 축소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현재 3~4평과 5~6평 규모에서 현재 규모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규모별 부엌공간, 규모에는 차이가 있으나 현재 부엌공간에 대한 개폐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부엌에 대한 만족도 중 부엌 위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부엌의 위치는 출입구 반대편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선호하였으며 조사대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사공간과의 공간적 분리가 될 수 있는 개폐여도 요구된다. 셋째, 부엌의 규모는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엌 공간의 개폐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엌 공간의 개폐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김희연, 이종민(1999), 소비자 특성에 따른 아파트 실내 공간 선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1호
이연숙 외(2005), 가사직업공간별 아파트 단위주택 계획요소 선호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4호
이정희(2004), 아파트 거주자의 생활양식 유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